

비만을 감소를 위한 식품기업의 자발적인 약속

두바이지사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만문제

-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만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연간 2만 명의 사우디 국민들이 각종 비만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다. 실제로 18세 이상의 국민 중 35.4%가 비만에 해당하며, 이는 비만국가로 악명 높은 미국의 비만율과 비슷한 정도이다.
-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령, 이번 해 7월부터 위장접합수술을 포함한 비만치료수술에 총 10억 리얄(약 2천 9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인당 2만 리얄(약 58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뿐만 아니라 '사우디 비전 2030'에서는 비만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적인 스포츠 설비들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글로벌 식품제조 수입업체들의 약속

- 사우디 식약청(Saudi Food and Drugs Authority: SFDA)은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건강한 식품전략(Healthy Food Strategy)을 시작했다. 건강한 식품전략의 첫 번째는 식품의 설탕, 소금, 트랜스 지방 함량을 줄이며 레스토랑과 카페의 메뉴에 칼로리를 기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우디 국민들의 영양상태를 측정하는 국가차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개인들에게 적정 칼로리 섭취량이 얼마인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사우디 내의 네슬레, 켈로그, 펍시, 코카콜라, 유니레버 등 많은 수의 글로벌 식품제조 수입업체들은 이와 같은 사우디 식약청의 건강한 식품전략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자발적으로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을 낮춘 제품을 생산하기로 약속했다.



사우디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지방, 저염 제품

건강 관점에서 특화된 식품 개발

- 사우디 정부의 캠페인 및 민간기업들의 협조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8세 이상 국민 중 69.7%가 과체중이며, 비만율은 35.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우디아라비아에 불고 있는 이와 같은 건강 트렌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사우디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식품기업들은 현지 업체들 및 글로벌 식품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을 줄인 제품을 선보이거나 체중감량에 효능이 있는 홍삼차와 같은 제품들을 현지인들의 입맛과 취향에 맞게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